



# “나눔으로 커피향보다 더 향기로운 세상 꿈꿔요”

재능기부 통한 이웃돕기 ‘나눔 프로젝트’ 기획 순천 ‘베니사프’ 백종창 대표

“소외된 이웃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천시 조곡동 동천변. 아담한 정원에 둘러 싸인 붉은 벽돌 건물이 있다. 외벽에는 카페 이름보다 더 커다란 글씨로 ‘커피, 마음을 나누다’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감미로운 커피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곳에서 최근 ‘나눔의 향기’가 가득 찼다.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고통 받는 두 아이를 위해 초록우산아린이재단전남지역본부(부본부장 소동하)와 지원봉사자 40여 명이 모였다. 아름다운 글씨로 재능기부를 펼치려 광주 및 목포에서 찾아온 케리그라피 봉사자들, 수공예품 판매수익을 나누려는 사람들, 이들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카페를 찾은 손님들 덕분에 1500만 원을 모금했다.

지난 2010년부터 일년에 하루씩 ‘나눔 프로젝트’를 열고 있는 베니사프 백종창(38) 대표는 “경기 침체 때문에 모금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지난해보다 모금액이 3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며 “쌀쌀한 날씨에도 모금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베니사프’는 라틴어로 ‘축복 받은 도시’라는 뜻을 가졌다. 모든 손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시작한 카페는 현재 가맹점이 8개로 늘었다. 어느덧 카페 대표가 됐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그가 가진 것은 맨주먹뿐이었다.

순천시 상사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가정형편이 낙관하지 못했다. 농사로 삼형제를 키워 주신 부모님께 대학등록금까지 받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94학번으로 입학한 직후부터 학비와 음

돈을 마련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어렵게 모은 전재산 500만 원과 이보다 더 많은 빚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 4.9㎡(약 1.5평) 크기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후 성실함을 무기로 10년 만에 198㎡(60평)으로 넓혔다. 그는 사업을 하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복지관을 찾아 반찬배달봉사를 이어왔다.

“카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어요. 뭔가 나누고 싶었지만 가진 게 너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돋지 않으면 과연 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돈이 없다면 시간과 마음을 나누기로 했죠.”

그는 복지관에서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밭벗이 되었다. ‘가난’ 때문에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학생 14

명에게 수년간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백 대표는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눔’이라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 저희는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가진 것을 항상 이웃과 나누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된 후에는 제 힘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잠을 줄이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웃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학교에 다니기 위해 융돈과 학비를 순수 벌어야 했던 백 대표는 지난 시간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다. 매장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의지’와 ‘형편’을 모두 감안하는 것도 과거 경험 때문이다. 일년에 적어도 하루는 이웃을 위해 살고 싶다는 백종창 대표, 인터뷰 내내 나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그는 앞으로도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좀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조선대, 필리핀 파견 의료봉사단 발대식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태풍 하이엔으로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에 파견하는 긴급의료봉사단 발대식을 21일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개최했다. <조선대 제공>

## 광주세관, 광산구에 연탄·위문품 전달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1일 광주 광산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 광주 대촌농협, 사랑의 김치 60곳 전달



광주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은 지난 20일 고학을 생각하는 주부임대회장 김미례) 회원 30여 명과 함께 김정김치를 담아 관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60여 곳에 전달했다. <광주대촌농협 제공>

## 우리 아이 키운대로 큰다

###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에세이 출간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최근 자녀교육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에세이 ‘우리의 자녀, 키운대로 큰다’를 출간했다.

차기 광주시교육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 전 총장은 이번 에세이 출간을 계기로 선거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교육 33계명’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떻게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가르침을 줘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양 전 총장은 “방모삼천지교” 고사를 들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정성이 중요하고, 그 토대 위에 자녀는 보고 배운 대로 큰다”며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자녀의 재능과 행태 등의 문제를 놓고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의 양과 자녀의 성공은 비례한다”면서 “자녀와 수시로 대화하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부모가

진짜 현명한 부모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와 명예가 떨어지면 교육이 흐물리고, 그 피해는 자녀에게 되돌아온다”며 “만약 자녀가 선생님을 평가하거나 흠을 보면 당당하고 맞장구칠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삼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총장이 자녀교육 에세이를 출간함에 따라 그동안 거론만 됐던 차기 교육감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 성당인 양 전 총장은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며, 최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지역 교육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대, 출산장려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근에는 인구보건복지부 지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윤정현)와 손잡고 교내 홍보용TV에 출산장려 영상을 상영하는 등 대학생들의 저출산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대는 지난 2010년부터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TOP-US(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활동을 통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알리웠다.

또 임산부 전용주차장 실태 파악과 출산장려 우수기업 탑방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4·19전국통일의병대 실천보고회



4·19전국통일의병대(의병장 김영용) 중앙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평동 경교장에서 ‘제6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 황국기념식 및 제2차 4·19통일운동 실천보고회’를 개최한다.

백범사상실천연합 정인철 사무총장의 경과보고로 시작하는 1부 황국기념식은 백범사상실천연합 김인수 대표와 노회관 전남대 명예교수, 김영진 5·18아카이브주지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진다. 2부 4·19통일운동 실천보고회는 4·19전국통일의병대 중앙본부 유병호(사진) 사무총장의 서명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광주보훈병원-전남경찰청 진료협약



광주보훈병원(병원장 정광익·사진 오른쪽)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지난 20일 전남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진료와 검진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광주보훈병원이 정부 3.0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보훈병원은 다른 기관과 진료 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훈병원 정광익 병원장은 “국가유공자 등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서석고 현혈증 441장 전남대병원 기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송은규)은 지난 20일 광주서석고(교장 정백영)로부터 현혈증 441장을 기증받았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병원 6동 2층 회의실에서 기증식을 갖고 정백영 교장과 김용호 학생회장 등 5명이 대표로 가져온 현혈증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현혈증은 지난 1년간 교직원과 학생들이 생명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사랑의 현혈증을 통해 모은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강만수(사업)·정행숙씨 차남 효학(원도소방서)군 김상복(장성군의회 의원)·공유자씨 차녀 영신(조선대 병원)양=24일(일) 오전 11시 수아비스 웨딩컨벤션 1층 수아비스홀.

▲김영선(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 부장)·김란주씨 차남 혁근(LG이노텍)군 김명호·정현씨 차녀 지혜(전남지방경찰청)양=24일(일) 오후 1시 20분 수아비스 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김홍재·황정순씨 차남 범진군 김영우·이재실씨 막내 미향(광주일보 문화사업국)양=24일(일) 오후 1시 30분 동대전컨벤션웨딩홀 4층 애스턴하우스.

▲정길주(자연관광여행사대표)·고숙자씨 차남 황중(서구청)군 인종정(전 대장석유)·노석순씨 차녀 소미(북구청)양=29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 웨딩컨벤션(구 경복궁) 2층 크리스탈홀.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이상면(전 전남도 정무부지사·광주대 교수)·한현숙씨 차남 은창군 정승기(서울 정승기 정형외과원장)·국혜련씨 차녀 소예양=30일(토) 오후 5시 서울 논현2동 성당.

▲인성고등학교(7회 동창회장 김용순) 졸업 30주년 흥미름데이=23일(토) 오후 5시 광주 상무지구 흥미름.

▲(사)전주이씨 대동중학원 광주·전남 지원회 여성 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금) 오전 11시 011-605-2059.

### 모집

▲광주송원초등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지원자격은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한 광주광역시 거주 어린이, 원서교부는 11월 (월) ~ 28일(목), 본교 행정실(062-360-5594) 및 본교 홈페이지(<http://www.k-songwon.es.kr>) 다운로드, 원서접수는 27일(수) ~ 28일(목)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30분(학생이 면접에 참여해야 하므로 학생 본인 필히 동행), 추첨일은 30일(토) 오전 10시, 구비서류는 입학원서 1부·소명장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용=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 부음

▲김규태씨 별세 광열·경현·현우씨 부친상=발인 23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금순씨 별세 김형호·형복·형석씨 모친상=발인 23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조길만씨 별세 석현·선화·정화·선미씨 부친상=발인 22일(금) KS병원장례식장 2분향소 062-960-4444.

▲황금동씨 별세 인성(전 LG전자 과장)·인호·해성씨 부친상 전갑수(광주시체육회 이사)·주원춘·고문찬씨 빙부상=발인 22일(금) 목포중·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061-271-4444.

▲신성호씨 별세 인수·지경·수경씨 부친상 이기분씨 삼배=발인 22일

(금) 학동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389.

▲라양자씨 별세 윤봉룡·봉섭·근봉·근복·봉님·황숙씨 모친상=발인 22일(금) KS병원장례식장 3분향소 062-960-4444.

▲이장용씨 별세 한철(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인명(태원공업 대표)씨 부친상=발인 22일(금) 목포금호장례식장 3분향소 061-272-0400.

▲301호 故이계순 님(여/75세) 子/女: 김진아·김재훈  
• 호: 301호  
• 장: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2  
101호 故이승권 님(남/49세) 子/女: 이지현  
• 호: 101호  
• 장